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갈등부터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카스티야를 거부하는 스페인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역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브렉시트로 환율이 요동치며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세계 각 나라가 긴밀히 연결된 세계화 시대가기 때문에 먼 나라의 일이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월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세계 분쟁과 갈등 지역을 이해하기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민족·종족·종교 집단간 이질성, 역사적 유산과 상흔, 정치 세력간 이해관계와 대립, 지리적 위치성과 지정학적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일어난 분쟁과 갈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갈등이 원인이 돼 일어난 분쟁·내전·분리주의운동 등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고풍을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 가톨릭계 주민이 앵글로색슨에서 벗어나려는 이유, 시리아에서 알라위파가 수니파에게 정권을 내주고 싶지 않은 까닭, 우크라이나인들이 탈리아를 외치며 친러파 대통령을 탄핵한 배경 등을 이해하려면 그 땅의 지리가 만들어 낸 역사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가 세계 분쟁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나아가 수 있는 분쟁 교양서를 내놨다.

‘분쟁의 세계지도’는 지리학·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의 배경·원인·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지난 1997년부터 무려 23년 동안이나 분쟁 관련 내용을 강의해 온 전문가다. 또 글로벌 사회에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차별적인 문화를 존중하는 세계시민 양성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1997년부터 분쟁 관련 책을 여러 권 펴냈다. 이 책은 대표저자로서 내는 4번째 분쟁 교양서다.

이 책에는 90여 개의 정밀한 지도가 들어

가 있다. 분쟁과 갈등의 양상 및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절마다 앞쪽에 각 나라의 기본 지도를 배치한 후 그 나라의 민족·종교 분포, 자연환경 등을 개관했다.

‘오슬로 협정 II(1995년)에 의해 구분된 자치 구역’, ‘카슈미르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해법’ 등 글로만 써져 있으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복잡한 내용을 정교한 지도로 나타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 각 대륙별 분쟁을 다루기에 앞서 ‘제1장 세계의 분쟁과 갈등 지역’에서 인종, 민족 등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고 민족과 언어의 관계, 민족과 종교의 관계 등 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이 교수는 “이 책이 세계의 분쟁과 갈등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데 유용한 길라잡이가 됐으면 한다”며 “또 이 책을 읽은 열혈 청년들이 분쟁과 갈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세계 곳곳의 난민 캠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난민들에게 ‘세계시민의 책무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직접 보여 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분쟁의 세계지도

이정록 외 지음 | (주)푸른길 | 2만2천원

새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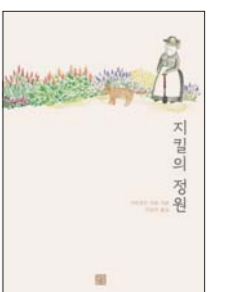
1.5: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정혜선 외 지음)

◆16살 스웨덴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7월 23일 국민의원(하원)에서 행한 연설과 그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화답의 목소리를 담은 책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조직하고 있는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의 기획으로 “행동해야 희망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서 공유하고 희망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도서출판 한티재. 126쪽. 1만원.



두 방문객 (김희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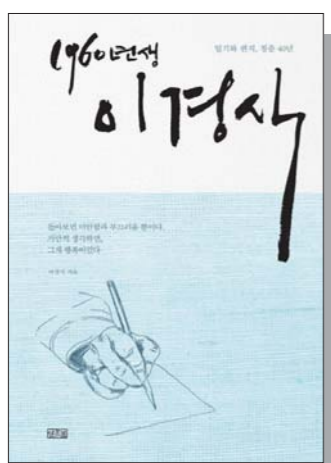
◆누구나 겪게 마련인 관계에 대한 문제를 기발한 상상력과 독특한 알레고리로 풀어내는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김희진의 장편소설이다. 3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아들 상운을 잃은 손경애는 매년 아들의 생일에 맞춰 조촐한 생일 식탁을 차린다. 언뜻 단순하면서도 숨은 공간이 많은 저택에는 아들의 손길이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민음사. 212쪽. 1만3천원.



지킬의 정원 (이승민 옮김)

◆정원 디자이너 거트루드 지킬이 들려주는 정원 가꾸기 지침서다. 지킬은 영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에 400개의 정원을 만든 화가이면서 지수 전문가이며 사진가다. 정원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지킬만의 색채감으로 영국의 정원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원 디자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정은문고. 240쪽. 1만3천800원.

386세대의 청춘·사랑 기록물



1960년생 이경식 이경식 지음 | 362쪽 | 1만8천500원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계층이다.

인구통계학적인 숫자로도 그렇고 사회경제적인 권력으로도 그렇다. 청년세대의 눈에 베이비부머 세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꼰대’로밖에 비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청년 세대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격동의 세월 속에서 모질게 경험한 뒤에 현재에 이른 ‘역전의 용사들’이다.

‘1960년생 이경식’은 386세대 운동권이자 베이비부머 세대의 끝자락인 1960년생 이경식씨의 40년간 쓴 편지와 일기를 묶은 정서적 기록물이자 자서전이다.

유신 말기에서부터 최근까지 정치와 경제의 격동 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무엇을 꿈꾸며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 왔는지, 현재시점이 아닌 당시의 ‘실시간’ 시점으로 드러낸다.

베이비부머를 사회경제적인 관점에 다룬 책은 있어도, 한 개인이 해당 시대마다 남겼던 사적인 글로써 베이비부머의 일생을 담아낸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책에서는 저자를 중심으로 한 삼대의 가족이 최근 40년 동안에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고 또 나누었는지, 또 가족이라는 틀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 지 생생하게 드러낸다.

책은 시기별로 총 4부로 나뉜다.

1부 ‘청춘아, 아픔아’에서는 1970년대 후반 고교 2학년과 3학년 때의 저자 일기를 추렸다.

2부 ‘청춘아, 사랑아’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 혁명을 꿈꾸던 20대 중후반의 운동권 활동가이던 저자가 평범하고 편안한 길과 특별하고 힘든 길사이, 칼날처럼 위험하던 그 자리에서 인생행로를 고민하며 장차 아내가 될 애인과 나눴던 편지를 모았다.

3부 ‘청춘아, 그리움아’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지향하던 이상이 현실의 벽 앞에서 부서지고 난 뒤에 30대 중후반의 저자가 어떻게든 그 이상을 현실 속에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외로움과 좌절을 처절하게 토해낸 시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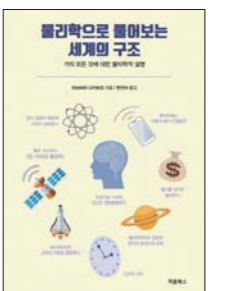
4부 ‘아들아, 청춘아’에서는 2010년대, 입대할 둘째 아들이 훈련소에 있는 동안 저자가 날마다 아들에게 부친 편지를 썼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중년의 고개를 훌쩍 넘어선 이제야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려고 날마다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애를 쓴다. 개인 문집이지만 다양한 글쓰기 양식들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사와 감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된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물리학으로 풀어보는 세계의 구조

(한진아 옮김)



◆세상에 넘쳐나는 의문들을 물리학에서 답을 찾게 해준다. 사물이 존재하면 인간은 사물에 대한 해석을 하게 마련이다. 물리학은 바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책에서 물리학이란 온갖 그래프나 공식은 접어두고 쉽고 편하게 세상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처음북스. 232쪽. 1만3천원.



좀 어리석은 여행기 (오현지 옮김)

◆자기만 알던 똑똑한 늑대가 더 의미 있는 지혜에 한 발 다가서는 성숙한 우정 여행기다. 네덜란드 그림책 특유의 회화적인 느낌이 잘 살려진 책이다. 어린이 마음에 우정과 겸손의 철학이 깃들게 하는 깨달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룬다. 바독이하우스. 40쪽. 1만2천원.